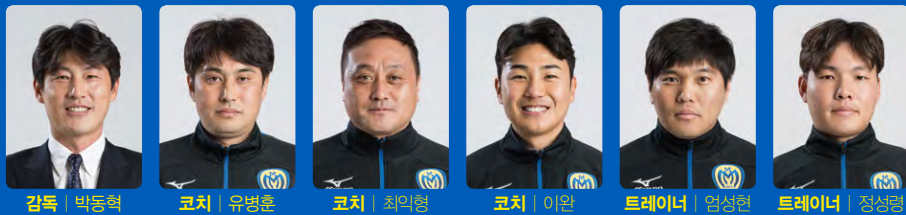


COACHING STAFF



GK



DF



MF



FW



NEXT HOME MATCH UP



아산 무궁화 FC

VS



부천 FC 1995

K LEAGUE 2 | 21R

2018. 7. 30(월). 19:30 이순신종합운동장

MATCH DAY MAGAZINE | VOL 09



아산 무궁화 FC

TODAY MATCH UP
K LEAGUE 2 | 19R

2018. 7. 14(토). 19:00 이순신종합운동장



대전 시티즌

아산을 지탱할 새로운 '리더십' 이한샘

휴식기 동안 아산 무궁화 FC에는 큰 변화가 생겼다. 핵심 구실을 하던 1079기 선수들이 팀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중 주장으로 활동한 이창용의 공백은 매우 아쉽다. 여러 포지션에서 팀이 필요할 때마다 제 몫을 해준데다 선수들이 한 팀으로 뭉치게 한 선수라 공백이 꽤 크게 느껴진다. 후반기에는 그 자리를 '뒀마당 지킴이' 이한샘이 메운다. 이한샘은 부드러운 리더십을 발휘해 박동혁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는 물론 동료들에게도 한 몸에 신뢰받는 선수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또한 아산이 K리그2에서 우승해 더 높은 무대를 누빌 기회를 잡게끔 공헌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DF 이한샘 PROFILE

생년월일 1989. 10. 18.
포지션 DF
신체 조건 185cm 80kg
등번호 33

데뷔 2012년 광주 FC
소속 팀 광주 FC(2012년)~경남 FC(2013~2014년)~
강원 FC(2015~2016년)~수원 FC(2017년)

K리그 통산 149경기 6득점 3도움
아산 통산 9경기 1득점
2018시즌 기록 9경기 1득점

Q. 후반기 첫 홈경기라 의미가 매우 큼니다. 또한 이 경기를 앞두고 부주장으로 선임되어 더욱 책임감을 느낄 듯합니다. 소감을 말한다면?

A. "주변에서 믿음을 주신 만큼 항상 보답해야 한다는 생각뿐입니다. 주장(민) 상기를 뒤에서 든든히 떠받쳐줍니다.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아산이 K리그2에서 정상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팀의 중심축 구실을 훌륭히 해낸 전역한 이창용의 공백을 메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닐 듯합니다. 어떤 리더십을 보이고 싶을까요?

A. "(이)창용이가 정말 완벽하게 팀을 하나로 뭉치게끔 해놓았어요. 그래서 자리가 크게 느껴집니다. 1079기가 잘해놓고 나간 만큼 남은 선수들과 더욱 의기투합하겠습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Q. 수비에서 해야 할 몫이 큰 만큼 롤모델로 알려진 세르히오 라모스처럼 후반기에 맹활약해야 할 것 같습니다.

A. "라모스는 정말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개인 능력도 훌륭하지만 팀을 위해서 뛰는 선수잖아요. 축구는 개인보다 팀이 우선입니다. 저 역시 제 개인 활약보다는 팀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물론 세트 피스 상황에서는 골 욕심을 부리겠습니다."

Q. 아산은 이한샘 선수의 커리어에 있어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팀일 듯합니다. 아산에 몸담는 동안 무엇을 얻고 싶은가요?

A. "제 축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팀입니다. 축구 열정을 다시 생기게 해줬으니까요. 그래서 아산에서 K리그2 우승하는 게 꿈입니다. 개인적으로 강등과 승격을 모두 경험해봤는데 이번에는 우승을 하고 싶습니다."

Q. 포지션이 수비수이다 보니 팬들의 시선에 잘 닿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자신의 장점을 어필한다면? 그리고 대전전에 임하는 각오를 남겨주세요.

A. "비록 수비수이지만 공격적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장기인 패스와 킥을 통해 팀이 후방에서 전방으로 빠르고 쉽게 공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대전전은 후반기 첫 홈경기인 만큼 선수들은 물론이며 코칭스태프 모두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산이 왜 승격할 수 있는 팀인지 경기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팬 여러분께서 많이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원 수리? 새로운 부주장 이한샘에게 바란다!"



안현범(DF) "(이)한샘이 형은 저의 원정 경기 룸메이트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형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다른 대원들도 한샘이 형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으면 합니다. 팀을 보다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주셨으면 합니다. 부대 생활도 즐겁게 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피치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좋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으니,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잘 이끌어주셨으면 합니다. 부주장 이한샘 파이팅!"



주세종(MF) "대학 시절에도 우리 팀 주장이었습니다. 지금도 부주장으로 우리 팀의 버팀목으로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히 항상 묵묵하게 팀을 이끌어주어 정말 고맙다는 마음뿐입니다. 앞으로도 부상 없이 주어진 역할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소원 수리할 게 있습니다! 청소빨래 당번일 때는 조금만 더 신경 써주세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역대 전적



골득실



KEY PLAYER



지난 5월 19일 홈 대전전 패배는 너무도 아픈 기억이었다. 객관적 전력상 한수 위라는 평가 속에 치른 경기였다. 하지만 결과는 0-1 패배였다. 전반 6분 주세종의 페널티킥이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하며 경기 흐름이 이상하게 흐르더니, 내내 주도권을 잡고도 대전을 꺾지 못했다. 이 경기에서 아산이 범한 큰 잘못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점. 둘째, 뜻대로 경기가 풀리지 않는다고 지나치게 성급하게 대처했다는 점이다. 당시 대전전 패배는 아산이 리그 우승과 승격을 원한다면 반드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객관적 전력 차를 떠나 승부는 뜻대로 흐르는 법이 없다. 어떠한 상황이 주어져도 가진 능력을 온전히 쏟아 후회 없는 경기를 펼쳐야 한다는 걸 당시 대전전 패배에서 배워야 한다. 당시 아픔을 안긴 대전과 다시 만나게 됐다. 이번에는 실수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월드컵을 통해 더 큰 선수로 성장한 주세종을 비롯한 아산 전사들의 분투가 요구된다.

PLAYERS POSITION

4-4-2

